IBKS Spot Comment

에너지/소재

이동욱

02) 6915-5671
treestump@ibks.com

[에너지/소재]
중국 수출 보조금 종료로 태양광 제품 가격 상승 전망

표면적으로는 세제 변경이나, 가격 경쟁을 제거하는 조치로 판단

중국 정부는 2026년 4월 1일부터 태양광 웨이퍼/셀/모듈을 비롯해 배터리 등 다수 품목의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0%로 조정할 예정이다. 앞서 2024년 12월 1일 기준으로 태양광 웨이퍼/셀/모듈의 환급률이 13%에서 9%로 하향된 바 있어, 이번 조치는 기존 단계적 축소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. 이 정책은 형식적인 세제 변경을 넘어, 중국산 제품의 해외 가격 경쟁력을 뒷받침하던 비용 완충 기능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다.

기존 9% 환급은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 부가가치세 부담을 상쇄하는 장치였던 만큼, 환급률 0% 전환은 산술적으로 수출 가격에 9%의 상승 압력을 유발한다. 이를 현재 세계 평균 가격에 단순 적용하면, 모듈은 와트당 8.9센트 기준 약 0.8센트, 셀은 와트당 5.1센트 기준 약 0.46센트, 단결정 웨이퍼는 개당 18센트 기준 약 1.6센트의 인상분에 해당한다. 다만 태양광은 구조적 공급 과잉과 점유율 경쟁이 심화된 산업으로, 비용 증가분이 즉시 판매가격으로 전가되기보다는 제조사 마진 조정으로 흡수될 가능성도 병존한다. 실제로 2024년 말 환급률 하향 국면에서도 추가 비용의 상당 부분이 가격이 아닌 수익성 측면에서 반영된 바 있다.

다만 2026년에는 정책 비용에 더해 원가 측 압박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. 특히 은 가격 상승은 실리콘 태양전지의 원가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. 은 페이스트는 전기 접점을 형성하는 핵심 소재이며, 은 가격이 온스당 90달러 수준으로 상승한 상황을 전제하면, 제조사가 은 사용량을 절감하더라도 원가 부담이 단기간에 완화되기 어렵다. 이에 따라 제조사들의 가격 인상 시도가 강화될 수 있다.

또한 시행 시점이 2026년 4월 1일로 예정돼 있어 단기적으로는 시행 전 선행 선적 및 재고 축적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. 이 경우 공급망 내 물량 흐름이 1분기로 일부 당겨질 수 있으며, 유럽/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한화솔루션 등 국내 업체는 선행 수요 증가에 따른 단기 출하 개선도 예상된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,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,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Compliance Notice
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(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)이 없습니다.
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